북한산약재 반입 확대

올한해 2천7백 88t 반입계획

지난해 대비 1천9백여t 증가

남북교역증진차원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수입시 북한산 한약재 반입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통일원은 최근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29개 품목중 백출 지황등 6개품목에 대해 총 2천7백88톤(백출 9백23、창출 6백、시호 60、오미자 65、지황 1천60、목단 80)을 반입키로 결정하고 나머지 23개 품목은 반입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키로 했다。

이는 96년 계획물량(9백톤) 대비 1천8백88톤이나 확대(백출 5백23、창출 3백、시호 40、오미자 35、지황 9백40、목단 50)된 것이다。

따라서 올 반입예정인 북한산 2천7백88톤 중 우선 9백톤이 내년 1월 이후 3월말 사이에 1차 통관 완료될 예정이다。

최근 열린 제19차 한약재수급조절위원 회의에서 북한산 반입량 심의 결과 백출 3백톤、창출 3백톤、시호 30톤、오미자 30톤、지황 2백10톤、목단 30톤 등 총 9백톤을 반입키로 결정한 것。

또 백출(1백톤)、창출(2백톤)、목단(50톤)、시호(50톤)、길경(50톤)、두충(50톤)등 총 5백톤은 구상무역 조건으로 국내 제초제(8톤)、요소비료(7백톤)、설탕가루(3백톤)등과 물물교환될 예정이다。

한편 반입자선정은 무분별한 반입신청 등을 예방하고 반입실적 향상을 위해 반입승인시 10%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 70% 이상 반입완료시 환불하고 70%미만 이행시 전액 미환불 하는 조건이다。

남북교역은 민족내부거래로서 북한물품반입의 경우 제3국산 수입 대체효과가 있으며 남북간 직교역 증대차원에서 북한산 한약재 반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 추진될 방침이다。

◇한국약용작물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가 6월 27일 호남농업시험장에서 열렸다.

DNA분석으로 한약재 감별

한약방·한의원등 응용、실무도움 기대

상지대 최호영교수 논문

DNA 분석에 의해 한약재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학계 주목을 받고 있다。

상지대학교 한의대 최호영 교수는 지난 6월 27일 호남농업시험장에서 열린 한국약용작물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서 「유전자 감식에 의한 한약재 감별」이란 특강을 통해 「식물체의 유전적 성질은 환경에 따라 변화되지 않고 유전에 의하여 전달되는 고유한 정보이기 때문에 유전물질이 되는 핵산(DNA)의 분석은 식물체의 확인 혹은 종간 구별에 훌륭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약재의 감별은 현재까지는 주로 외부형태와 내부 해부학적 특징 및 이화학적 분석에 의존하여 이루어져 왔다。그러나 식물체가 나타나는 형태는 복잡한 대사 경로와 최종 산물로서 유전적으로 독립된 다른 변화가 유사한 형태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통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식물이 유사한 형태를 지니게 된다。

최 교수는 따라서 「식물체의 일부분만이 사용되는 한약재의 경우 식물체가 지니는 전체적인 특징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특정 부위만을 대상으로 식물 종을 구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한약재가 절편으로 유통되는 경우는 그 감별이 더 한층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DNA분석에 의한 감식법은 한의원이나 한약방에서 형태가 유사해 구별하기 혼돈되는 약재들의 감별에 응용하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전자 감별방식은 원래 콩 보리등 농작물 감별에 사용되다가 96년 일본에서 부터 DNA 분석에 의한 새로운 한약재 감별법이 논문으로 발표되면서 한약재 감별에 응용되기 시작했다。

국내유통사향 63%

"비공식 수입품"

밀수、여행객 휴대

국내에서 유통중인 사향의 63%、웅담의 25%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8일부터 6월18일까지 각 시도를 통해 전국의 한약재 수입업체、도소매상、한방 병의원、약국등을 대상으로 사향 및 웅담의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업소들이 현재 보유중인 사향은 모두 48만6천3백49g、웅담은 2만5천9백80g이다。이 가운데 사향의 경우 보유량은 63%인 30만6천4백95g이 정식 수입통관된 것이 아니라 밀수품이나 여행자들이 휴대해 들여온 것 등 「비공식수입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향의 경우 전체 재고량의 92.5%를 수입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를 한방병원(5.8%)、한의원(0.8%)、소매상 등 기타(0.9%) 취급업소들이 가지고 있다。웅담의 경우 수입업체의 보유량이 46.1%로 가장 많았으며 도매상(25.5%)、한방병·의원(17.2%)、한약상(9.6%)등에 고루 남아 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의약품수출입협회、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에 이같은 조사내용을 재확인하되 취급업소들에 정상품만을 판매、관리토록 지시했다。

원산지표시 관련 재고 포장재 처리기간 연장

농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농산가공품 재고포장재의 사용이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농림부는 6월28일、활자크기가 맞지 않은 포장재 중 고시96년 12월 16일)이전 제작분에 대해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키로 하는 한편 원산지 미표시 포장재(고시이전 및 이후 제작분 불문)와 활자크기가 맞지 않는 포장재 중 고시이후 제작분은 스티커 부착 또는 추가인쇄 등 원산지표시를 한 후 사용토록 했다。

이는 한국유가공협회와 (주)진로종합식품등 관련 가공업계로 부터 재고포장재를 연장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원래 6월30일까지 였던 재고포장재 사용 계도기간을 오는 9월30일로 연장키로 한 것이다。

인삼협동조합 수출협의체구성

국내 인삼류 제품제조업체들이 원만한 협조체제를 이뤄 고려인삼 수출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선의의 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 수출촉진협의체가 구성됐다。

인삼협동조합 중앙회(회장 조기환)에 따르면 연간 50만달러 이상 수출농가、인삼제품공업협회、인삼연초연구원、고려인삼학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인삼수출진흥협의회」를 발족키로 하고 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안) 논의 및 수출동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재배기술

약초 황금 순지르는 시기와 시비방법

7월상순、8월중순이 가장 적합

약초 황금의 순지르는 시기와 시비방법이 구명됐다。

전남도농촌진흥원 특작연구팀(팀장 정병준)은 황금은 7월상순과 8월중순에 순지르고 비료는 밑거름으로 60%를 준뒤 7월상순과 8월중순에 한차례씩 질소질과 칼리질비료를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도농진원 특작연구팀에 따르면 황금(예천종)을 1백20㎝ 두둑에 3열로 재배했을 때 7월상순과 8월중순에 각각 순을 질러주면 순지르지 않을 때보다 위뿌리비율이 73%로 높아지고 뿌리길이도 평균 16.2㎝이며 수량이 10a(3백평)당 1백84kg으로 19% 증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밑거름을 70% 준뒤 7월상순에 1회 뿌리는 관행 대신 밑거름을 60%로 하되 7월상순과 8월중순 각각 1회씩 나눠 사용하면 위뿌리비율이 늘어나는등 수량이 12% 증가하고 소득도 18%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계수련회 행사준비 관계로
8월1일자 생약보는 쉽니다。

인사

「任」

△방창섭 서울 영등포구 사무소장 △정준웅 서울 영등포구 공판장장 △황환주 서울 강북구 공판장장(이상 97년 6월4일부)〉△이영화 총무과장 중앙공판장 파견(사무국 겸직)97년 7월1일부

「免」

△이경구 중앙공판장 대리 97년 6월30일부(의원면직)

내방

△정현모 부회장 △엄경섭 이사 △장지홍 이사 △허영 감사 △신현석 경기 양평군 사무소장 △이인기 경기 포천군 사무소장 △남춘옥 경기 여주군 사무소장 △허수 강원 춘천시 사무소장 △정연수 전북 장수군 사무소장 △최상환 경북 경주시 갑구 사무소장 △신상섭 충북 단양군 공판장장 △허성무 부회장 △이문섭 부회장

동과 차잎 뽕나무가지

비만억제 효능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홍석산 박사팀

불은 팥 동과(冬瓜) 차잎과 뽕나무가지의 수용성 추출물이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생물공학연구부 홍석산 박사팀은 최근 동과 붉은 팥、차잎、뽕나무가지로부터 추출한 수용성물질이 설탕 및 전분 함량이 높은 사료를 먹고 살찐 흰쥐의 비만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홍박사팀은 이들 4종의 혼합물이 사람의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홍박사팀은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만 인용 다이어트식품을 개발、특허를 출원하고 프랜차이즈 약국체인 (주)온누리 건강의 자회사인 (주)온누리내츄럴웨이에 기술을 이전、상업화할 계획이다。

홍박사팀은 이와 함께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의 연구비 지원으로 전북 순창의 금과농협 및 (주)온누리내츄럴웨이와 함께 향후 3년간 동과의 비만증 억제기능규명 및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개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연구가 완성되면 동과는 농촌의 유휴농경지를 활용하는 고소득작물로 재배가 가능할 전망이다。